



올바른 기독교론적 예표론을 향하여

Toward the foundation of a Christological Typology

황창기* (고신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 한국동남성경연구원장)

목차

가. 들어가면서 : 문제점	54
나. 구속사적 예표론의 정의 [redemptive-historical definition of typology]	55
다. 출(出)애굽 모형[예표론의 응용]	58
라. 적용의 실례: 재창조의 실례	60
마.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재창조	62
바. 첫 창조의 모형 (전형)	64
사. 나가면서	68

요약

올바른 기독교론적 예표론을 향하여

본고의 목적은 성경해석과 적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자리매김을 시도하였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공간에 제한된 인물로 전제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창조자 주님이 어떻게 피조된 시간과 공간에 묶일 수 있는가? 그 분 자신 [Person]은 온 교회적인 분이요, 만유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시대의 그리스도였고 [고전 10:4; 히 11:26]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요[엡 2:5-6], 오고 올 성도들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론적 예표 [모형]론, 특히 출 [出]애굽 주제로 말하자면, 구속사적으로는 '원형' [antitype]이시면서 성경해석 및 적용상으로는 '원초형' [prototype]이시다. 따라서 이런 빛 아래서 볼 때, "성경의 사건들은 구원역사에 따라 시대별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성도들의 삶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또는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는 새로운 작업 정의 [working definition]를 설정해 보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출[出] 예루살렘)이 만유를 변혁시킨 재창조로서 성찬식으로 제정된 점을 하나의 실례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성찬식은 변혁자로서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재창조 행위의 근원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성찬식으로 구현된 '재창조' 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 1:2-2:4]과 무관하지 않다. 성찬식은 1) 주님께서 떡을 잡으시고, 2) 축사하신 다음에, 3) 떼어 (잔에 부어), 4) 이름을 붙여 (내 몸, 내 피) 5) 나누어 주시고, 6) 먹고 마심으로 거행된다. 말하자면 성찬은 '6 가지 전형으로 된 주님의 재창조 사역' 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5 가지

전형으로 된 창조 사역' 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셈이다. 곧 '축사' 가 덧붙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을 자주 시행할 것이며, 제사장된 성도는 먼저 주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리고 일을 시작하는, 그야말로 주님께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

주제어:

예표론, 출애굽, 원초형, 성찬식, 재창조

Toward the foundation of a Christological Typology

Prof. Dr. Chang-Kee Hwang

This paper is an attempt to set the place of Jesus Christ using a Christocentric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ith Christological typology. Most, if not all interpreters perceive Jesus Christ as a figure who is limited by time and space. In other words, his existence is usually limited to the land of Palestine during the first century.

However, Christ as the "Whole Church Person" unites His People in the church of the Old Covenant and the New Covenant. In fact, He is the Person of all [panta] (1 Cor. 10:4; Heb. 11:26). For example, contrary to most interpreters who see the Mosaic exodus as the progenitor of all exoduses, Jesus Christ's "Exodus from Jerusalem" should be viewed as the prototype of all Biblical exoduses [Luk.9:31].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saic exodus and Jesus' Exodus should be viewed not only a relationship of type and antitype in the redemptive history, but also of type and prototype for the application of Biblical interpretation.

For Biblical interpretation and its application, I suggest the following model. One should interpret all biblical covenants chronologically using redemptive history, and apply them Christocentrically or Christotelically. To illustrate, consider the Lord's Supper administered

in the way of a six-fold action of taking, blessing, breaking down and restructuring, sharing and consuming. Using a Christocentric or Christotelic application, we therefore view the Lord's Supper, remembering Jesus Christ's Exodus from Jerusalem (His death and resurrection), as Jesus' act of re-creation which consists of a six-fold pattern of human work. The six-fold pattern of human work is transformed from the five-fold pattern of God's original work of creation in Genesis 1:2-2:4. The added step of the new, six-fold pattern is "the giving of thanks" to Go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Lord's Supper.

Key words:

Typology, exodus, prototype, Lord's Supper, re-creation,

가. 들어가면서 : 문제점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시공간에 묶인 분으로 아는 것이다. 즉 1세기 팔레스틴에 살던 분으로만 이해한다. 그리하여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창조자를 피조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분으로 전락시켜 놓고, 그리스도 중심적 [완결적]성경 이해와 설교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모형 [예표]론에 따른 그리스도의 위치 파악도 자연이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형론 자체가 역사적 이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즉 성경해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원형 [archetype]되심의 의미를 놓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시대적으로 앞선 모형 [type]이 구원역사의 전진을 따라 원형인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분은 구약시대의 모세의 그리스도 [히11:26]요 광야의 그리스도 [고전 10:4]이시다. 말하자면 아담 시대의 그리스도요, 동시에 오늘 우리들 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시대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러나 시공간

1) 부산 사범학교,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Westminster 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석사 학위[MAR]와 신학석사 학위 [Th.M.]를 받고,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에서 신약 전공으로 신학 박사 학위[Th.D.]를 받았다. 미국 Calvin 대학에서 두 차례의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성경 해석학을 연구하였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삼일교회를 개척하였고, 고신대학교 신약교수로 재직 중에는 대학교회도 개척하여 12년간 섬겼으며, 교목실장, 교무처장, 총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한국 성경공회 신약번역 위원장, 한국성경신학회장으로 섬겼으며, 현재는 고신대학 은퇴 교수로 한국동남성경연구원 [www.kosebi.org] 원장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문서선교회,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예수님 인격에 비취 본 신약의 구속사적 설교」 성광문화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이해」 이레서원 등이 있다.

에 매인 우리 인간적인 역사 이해의 잣대로,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세기에 유대 땅에 사시던 한 역사적 인물로만 여기고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모형론 자체보다도 모형과 원형의 근본 근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찾고자 한다. 구속사적 성경해석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매김'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이다. 모형 [예표]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전적으로 모형론을 부인하는 사람부터,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여기서는 구속사적 예표론을 중심으로, 그것도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학상의 '자리매김'과 그의 의에다 우리의 논의를 한정시키고자 한다.

나. 구속사적 예표론의 정의

[redemptive-historical definition of typology]

1. 예표 [모형]론의 혼동²⁾

예표론은 석의 [exegesis]나 해석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건, 인물, 제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다룬다. 모형론은 예언과도 다르다. 예언은 앞을 내다보고, 예표론은 되돌아보는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형론은 풍유와 차이가 있다. 모형론은 역사적 상황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진 반면에, 풍유의 성격은 아무 역사적 근거도 없이 황당하게 관련짓는 특성을 가진다. 모형론은 상징주의

2) David L. Baker, "Typology and the Christian Use of the Old Testament" in G. K. Beale (ed.) *The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 : Essays o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324

[symbolism]가 아니다. 상징적 해석은 일반적인 진리의 표현으로 그 대상을 이해하는 반면에, 모형적 해석은 역사적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규명한다. 모형론은 방법이나 체계 [system]가 아니다. 교부들은 세세한 예표론적 방법을 발전시켰으나 성경에서 예표적 접근 자체가 너무 느슨하여 일정한 용어조차도 없다. 성경은 예표에 대한 일목요연한 목록은 물론 예표를 해석하는 그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다.

2. 예표론의 2 가지 근본 원칙³⁾

(가) 예표론은 역사적이다. 주된 관심사는 단어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들 즉 사건들, 사람들, 제도에 관한 것이다. 예표론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특히 택한 백성들의)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 속의 사건들은 지속적인 전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나) 예표론은 관련된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상응 [일치:correspondence]를 암시한다 [implies]. 예표론은 모형과 원형 사이의 세세한 병행보다도 근본적 원리와 구조의 일치에 더 관심을 가진다. 역사와 신학에 상응(일치)점이 없이, 단순한 병행은 성경이해에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3. 예표론에의 구속사적 접근⁴⁾

예표가 확실한 모델을 제공하는 한, 원형은 신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창세기 12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3) David L. Baker, "Typology and the Christian Use of the Old Testament", 327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과 바로집의 큰 재앙은 출애굽의 모형이다. 출애굽 주제의 근거가 바로 구속사적 예표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출애굽 주제 [Exodus motif]가 많이 발전하여 성경 이해에 크게 기여한지 오히려 되었다. 그래서 아래 "다"에 소개한 여러 유형의 출애굽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풍성한 깊이와 세계관으로 감격한다.

4. 예표의 주요 특성들

구속사적 의미에서 벨코프 [L. Berkhof]는 예표와 원형 사이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 닮은 점 [resemblance], (나) 주님께서 지정하심 [divine appointment] (다) 미래 예견 [prefiguration]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⁵⁾

휴겐버거 [G. P Hugengerger]는 예표론을 소개하는 글에서 클라우니 사각형 [Clowney Rectangle]으로 마무리한다.⁶⁾ 이것은 이 사각형이 모형 [예표]론을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잘 응용함을 입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이 클라우니 사각형의 적용 사례들을 소개하였는데⁷⁾ 구속사적 성경이해와 설교에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5) G. P Hugengerger, "Introductory Notes on Typology" in G. K Beale (ed.) *The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 :Essays o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334

6) G. P Hugengerger, "Introductory Notes on Typology" 339-340

7) 황창기, "클라우니 사각형의 적용사례들", 「교회와 문화」 제21호 [출간 인쇄 중]

다. 출(出)애굽 모형 [에피]론의 응용

1. 출애굽의 종류

에피포론을 따라서 성경에서 많은 출(出)애굽 주제를 발견한다.⁸⁾ 두드러진 것만도 아브라함의 [족장들의] 출(出)애굽부터,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성도들의 출애굽, 다윗의 출(出)블레셋, 유대민족의 출(出)바벨론, 예수님의 출(出)예루살렘, (=성도들의 출(出) 죄악 = 출(出) 사망 = 출(出) 흑암 = 출(出) 사탄) 등이 다양하다.⁹⁾

모형[type]을 시대 순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할 수 있겠다. 즉

족장들의 출애굽 ⇒ 모세시대 이스라엘 출애굽 ⇒ 다윗시대의 출 블레셋 ⇒ 유대인의 출 바벨론 ⇒ 예수 그리스도의 출 예루살렘 [눅 9:31; 주님과 함께 성도들의 출 죄악(출 사망, 출 사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시에는 성도들도 함께 죽으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엡 2:5-6]. 우리는 이 점을 성경 '해석' 과 그 '적용' 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예수님 출 [出] 예루살렘의 의의

이 때 원형 [antitype]은 예수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여기서 모형 [type]인 구약의 여러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보다 역사적으로 앞선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

8) James B. Jordan, *Through New Eyes: Developing a Biblical View of the World* [Brentwood: Wolgemuth & Hyatt, Inc., 1988], 183.

9) 출 사망, 출 죄악... 등의 용어는 필자가 고안하였다.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연합 [union with Christ]을 드러낸 말이다.

중에서 모세가 인도한 출애굽 [Exodus]보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원초형 [prototype]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온 교회적인 분 [whole church Person]이요, 만유이신 분 [panta Person]이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현대 신학은 예수님을 시공간에 제한된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점을 현대 학문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공간은 피조물 [creation]인데 어떻게 창조자[creator]이신 예수님을 제한시킬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1세기 팔레스타인에 한정시키고는 성경을 결코 바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갈 3:16과 엡 2:5-6, 벧 1:3을 생각해보라.¹¹⁾ [롬 5:12-6:5 참조]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8].¹²⁾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는 예수그리스도가 시공간에 묶일 수 없

10)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예수님의 인격에 비취 본 신약의 구속사적 해석과 설교」 [서울: 성광문화사, 2005]; ---,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이해」 [서울: 도서출판 이레, 2000], 참조.

11) (갈 3:16) 이 약속들은 사)아브라함과 그 4)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4)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4)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엡 2:5-6)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벧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2) (계 1:8)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참조, 사41:4] VEgw, eivmi to. a;ifa kai. to. w=(le, gei ku,rioj o' qeo,j(o' w'n kai. o' h=n kai. o' evrco,menoj(o' pantokra,twÁ (계 22:13) evgw. to. a;ifa kai. to. w=(o' prw/toj o' e;scatoj(h' avrch. kai. to. te,lojÁ

음을 볼 수 있어야 하겠다.¹³⁾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론적으로 말하자면 '원형' [type]이면서, 실제 성도들의 삶에 적용면에서는 '원초형' [prototype]이란 말이다.

3.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이해 및 적용의 원리

따라서 성경해석에서 그 핵심 적용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사건의 이해는 구원사의 전진에 비추어 시대별로 (chronologically) 하되, 그 적용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Christocentrically), 또는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Christotelically) 시행하라."¹⁴⁾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형' 이면서, 동시에 '원초형' 되심을 드러낸다.

라. 적용의 실례: 재창조의 실례

원형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재창조이다. 그런데 왜

13) 사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란 표현에서 문법적으로 kai는 epexegetical kai. 로 '즉', '말하자면 (that is to say) 이란 뜻으로' 알파, 즉 오메가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Blass and Debrunner: *A Greek New Testament* [1961], 228 [ss.442(9)]

14) 필자는 강의 시간에 이 점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해석학계에서는 아무도 이와 같은 주장하지 않는다. 최근에 문헌비평[literary criticism]에 근거하여 출애굽 주제 [exodus motif]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 역사적으로 앞선 모세시대의 출애굽을 근거로 논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이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해석자 자신이 시공간에 제한된 존재이기에 온연중에 예수님도 시공간에 제한하여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해석을 고수하는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도 여전히 2000년 전의 인물로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적시성이 맞지 않는다. 이점에서는 역사적 예수님 [historical Jesus]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경의 마감, 이적, 방언 문제에 대한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대답만 제공할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그리스도 완결적 접근법' [Christotelic approach]이 등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 순서로 전개하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계시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님의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로부터 그 근거를 찾는다는 것을 귀납적으로 증명하고자 실례를 들어본다.

여기서 귀납적이란 필자가 이 논지를 창조론에 근거하기보다 구원론에 근거하였다는 말과도 연관성이 있다. 창조론에서는 빛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신에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재창조의 빛은 더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구속사적 접근에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교회까지를 훑어 내려오기보다도, 재창조의 변혁에서 구약 쪽으로 되돌아보는 방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중심적 [Christocentric]으로 설명하기보다 그리스도 완결적 [Christotelic]으로 접근하였다. 이제 이 실례가 곧 재창조의 근원적 예식인 성찬식과 닮은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1. 탁구

요즈음도 탁구를 매주 두어 번 치려고 노력한다. 탁구를 즐기는 것으로 건강 유지의 주요 방편으로 삼기 때문이다. 집 근처의 어느 복지 시설 지하실에서 우리교회 장로님과 주로 친다. 그런데 이 탁구를 치기 전에 우리는 간단한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 그 이유는 탁구 치는 것도 '재창조' [re-creation] 행위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리될 수 있다.

[1] 우리는 그 공간, 그 시간, 탁구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시설을 취하고 [take],

[2] 축사 즉 감사기도를 드린 후 [give thanks],

- [3] 각각 자기 공간과 기구를 나누고 [break],
 - [4] 경기라는 이름 [name]하에
 - [5] 부여받은 [distribute] 임무대로 뛰고,
 - [6] 좋았던 [good]점과 아쉬운 점을 평가한다 [evaluate].
- 이 행위는 재창조의 전형인 성찬식과도 비슷한 순서이다.

2. 공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는 일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1] 공부할 것들과 시간 및 장소를 취하고 [take],
- [2] 감사기도하고 [give thanks],
- [3] 지금은 '연구 또는 시험 준비 공부 기간'이라 정하고 [name],
- [4] 계획대로 정해진 부분을 나누어 정하고 [distribute],
- [5] 내가 배정받은 부분을 열심히 연구, 실험, 작업하고 [distribute-work]
- [6] '어렵다', '더 공부해야겠다' 는 식으로 평가한다 [evaluate].

마.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재창조

이 재창조의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다. 만유 [all=panta]이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천지개벽 적 변혁 [transformation] 이다. 즉 우주보다 더 큰 만유가 무너졌다가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주님의 변혁은 곧 우리의 변혁으로 이어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s]이 된 것이다 [고후5:17].

재창조는 창세기 초반의 첫 창조의 타락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변혁한 것이다. 물론 '이미' 와 '아직 아니' 라는 구조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시었다. 주님은 이것을 재림 때까지 성찬으로 기념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것은 '사례하시는 것' 즉 감사기도였다 [고전 11:24]. 첫 창조에는 아담의 타락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성찬식은 아래와 같이 주님의 재창조를 이렇게 드러낸다.

- [1] 예수님이 떡과 잔을 취하시고(take)
- [2] 축사하시고(give thanks),
- [3] 떡을 떼어(break) [잔에 포도주를 채워]재구성하시고, 내 몸[피]이라고 이름 붙여(name)
- [4] 나누어주시며(distribute)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시며,
- [5] 성도는 먹고, 마신 후
- [6] 자신들의 반성과 다짐을 한다(evaluate).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성도는 늘 재창조의 일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하는 영광의 작업 [labor]은 '자연'을 취하여 '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날마다 시작하는 자기 직업상의 일은 물론, 물을 한잔 마셔도 재창조이다. 자세히 생각해 보라. 물을 마시려면 컵을 (꺼내어) 잡고 [take] 물을 [쪼개어] 물 컵에 채워 [break], 마실 자에게 나누어지고 [distribute], 받아 마시고 [drink] 아! 시원하다! 또는 물맛 좋다 [good!]하는 식으로 물맛을 음미하고 평가한다 [evaluate].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이런 재창조 행위이다. 누구든지 주님이 마련하신 공간과 시간 및 물질 등의 자연을 취하여 [take] 시작한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처럼 '사례 즉 감사기도' 를 올리고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재창조는 첫 창조의 변혁 [transformation]이라고 말하였다. 재창조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럼 첫 창조는?

바. 첫 창조의 모형 (전형)¹⁵⁾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전형은 세상을 건설하고 영화롭게 하는 인간 행위의 원초 모형 [prototype]이다. 다시 말해서 재창조를 하는 인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신 원 창조 사역 [God's original work of creation]의 전형을 따른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원 창조는 인간이 따를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따를 [copy]수 있는 것이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고, 형식 없는 공허에 형식을 갖추고,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며, 동물 및 식물계와 같은 여러 부류에 재구성한 세상 [restructured world]을 배분하셨다. 인간은 명확히 밝히고 [illuminating], 재구성하고, 이름을 짓고, 분배하는 행위들을 따라할 수 있다. 창세기 1:2-2:4을 근거로 5중 연속행위로 묶어보자.

15) James B. Jordan, 「새로운 시각으로 본 성경적 세계관」(Through New Eyes: Developing a Biblical View of the World, 이동수, 정연해 역, 도서출판 로고스, 2002[1988]) 117-120; [사실 번역본을 찾지 못하여, 원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는 현실이라, 제 10장 "Breaking Bread : The Rite of Transformation"을 자세히 읽기를 권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는 성찬식을 '변혁의 의식'으로 보는 안목, 우리 성도를 변혁의 역군[11장]으로 삼고 세상과 인간성에 적용해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재창조의 의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과 그 사역이 이 세상의 모든 구원 역사적 진전에 따른 변혁의 핵심이란 말이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다.

1.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붙잡으셨다

[God took hold of the creation]

사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And God said]라는 표현이 곧 이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의 운행하시는 인도로 [under the hovering guidance of the Spirit] 세상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행한다 [잠 8:30, 요 13, 10, 히 1:2, 3].¹⁶⁾

즉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은 집행하신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다. 인간이 피조물을 잡고 [lay hold on]작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측면을 본받는다 [images]

2.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재구성하셨다

[God restructured the creation]

이것은 특히 첫 3일 간의 창조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흑암에서 분리하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16) (잠 8: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2)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히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의 물로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 [separated]. 인간들도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본받는 [image] 것이 불가피하다. 만약에 내가 나의 서가에서 책을 옮긴다면, 내 서가의 원래의 모습이 흩트려져 [break down] 재구성하게 된다. 내가 땅에서 광물을 파서, 가열하여 광석에서 금을 분리한다면, 재구성하는 것이다.

어떤 물건이 부서져 재구성되었다면, 그것은 그 이전과는 달라진다.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금광석'은 '순금'과 '찌꺼기'로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3일 간의 창조 사역으로 나온 것들에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본다. 즉 낮, 밤, 하늘, 땅, 바다라고 하셨다. 비슷하게도 우리도 우리에게 나온 것,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든지 예술작품 이든지 새로 조성한 거리에다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3. 하나님은 그 일하신 것을 분배하셨다

[God distributed His work]

이 일은 마지막 3일 간에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궁창에 다혜, 달, 별을 두시고 새들도 궁창에 날아다니게 하셨다. 또 바다에는 물고기를 배치하시고, 땅에는 동물과 사람들이 살도록 하시었다. 이 분배 행위는, 정확한 말하자면, 만들어지는 작업 [work]이 끝난 다음이다. 사실 무엇을 만드는 일이 끝나면, 그것으로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① 그것을 나를 위하여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듯이]. ②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릴 수도 있다. ③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바꿀 수도 있다 [팔든지 교환하든지].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도 받는다. 또 친

구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 선물에 대하여 설명 또는 주의 사항을 같이 건네준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세상을 분배하실 때, 물고기, 새, 짐승,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었다.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주체들 [ruler]이 되어야 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 하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인 동시에 명령이었다. 그의 나라를 수여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에 관한 순종의 규정 [칙]이기도 하다 [창 1:28-30].

순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즉 선물 다음에 규칙이고, 약속 다음에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신 다음에, 생활할 규정을 주신다. 먼저 율법이 온 다음에, 복음이 올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생명나무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선악과로서 우리에게 규정[법칙]을 주신다.

4.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평가하셨다

[God evaluated His work]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31]라고 한 본문에 드러난다. 첫 평가는 다 소진한 후 또는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한 예비적인 것이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그 맛을 보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국을 끓여 식구들의 그릇에 담아 나누어 주면서, '맛이 어떻지?' 라고 묻는다. 즉 음식 맛이 어떤지를 먼저 묻는다. 식사 끝에 묻는 것이 아니라, 맛본 후에 묻는 것이다.

5.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즐기셨다

[God enjoyed His work]

하나님의 7일째의 안식일에 쉬심은 창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창조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어 쉬시는 성전은 언제나 세상에 세워져 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또는 그 땅의 중심에 있었다. 자신의 일을 맞보시고 좋은 줄 아시고 하나님은 편안하게 즐기고 계셨다. 것처럼 국 맛이 좋으면 한 그릇 다 먹어치우고는 한 그릇 더 달라고 것이다.

이상의 단순한 5 대 행위는 매우 일상적이지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imaging of God)은 위대하고 영웅적인 행위라 기보다, 일상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장려하고 격려할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와 같이 일상적인 행위로 지속적이고 중단 없이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아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살이에서 각자의 소명, 즉 삶에 따른 모든 행동은, 그래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존엄한 것이다.

사. 나가면서

1. 창조사역과 재창조 사역의 차이는 '감사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붙잡으시고 [take hold of], 떼어 내어 [break down] 재구성하시고 [restructure] 여러 피조 계에 분배 하신다 [distribute].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음미하고 [evaluate;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즐긴다. [enjoy; 안식일에 즐긴다 이 5 단계에다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한 단계를 더 추가한다. 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the giving of thanks to God]. 그래서 재창조 행위는 6단계가 된다.

2. 이러한 재창조 행위에는 세계관이 있다.

제사장인 우리 인간은 피조물을 부여잡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처럼 제 마음대로 장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피조물로서 떼어내어 [breaking] 재구성하여 [restructuring] 주거나 [giving] 교환함으로 [trading]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shar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성찬에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3. 재창조를 나타내는 성찬은 변혁의 의식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으로 만유 이시며, 또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핵심이시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기 바란다.¹⁷⁾ 신비의 성찬을 자주 거행하는 교회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접근하지 못한다.

끝으로 위와 같은 접근법에 전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줄 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모형 [에피포]론 및 출 [出]애굽 주제에 대한 의견 일치가 요원한 현실이라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을 믿고 참여하는 사람들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17) 성찬식을 자주 하려면, 성찬이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잔치요, 어린양의 혼인잔치의 예행으로 우리 신랑 예수님의 큰 상을 미리 받는 현장으로 여기자.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조심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사람을 많이 배치하자. 세례교인들은 일어서게 하여 속히 분병하여 떡을 받은 자들은 앉아 기다리다가 목사의 인도에 따라 다 같이 먹도록 하자. 그리고 분찬 때도 일어난 세례교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잔을 받아 앉아 기다리다가, 목사의 인도에 따라 일제히 마시자. 이렇게 하면, 성찬식이 있는 날이나 없는 날이나 예배시간의 차이는 몇 분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제정하신 재창조의 성찬을 우리의 실제 생활 [천국 건설 작업]과 연결하고자 한다. 즉 올바른 기독교적 예표론으로 주님의 왕 되심을 [Lordship] 생활화하고, 나아가서 '성경적 세계관을 향한 신학 함'의 일종의 시도로 이해하기 바란다. ■